

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

산재사망은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

 민주노총



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,
노동자 참여할 권리 보장하라



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

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

 민주노총

